



‘금강경 메주 수행’
김용숙 보살

금강경과 메주. 언뜻 생각하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다. ‘금강경 메주’와 밤낮으로 같이 살면서, 금강경 가르침대로, 메주처럼 구수하고 진솔하게 살고자 하는 가족이 있다. 김용숙 (대전 서구 둔산동·42) 씨 가족이 그 주인공.



◇“우리는 수행 가족입니다” 딸 윤옥의 찬불가연주를 듣는 김용숙 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생각하면 힘솟죠”

가족 이름에 ‘부처님’ 붙여 불러

“엄마! 엄마는 메주가 좋아, 내가 더 좋아?” 3일 기자가 김 씨 집을 방문한 날, 이 집의 막내 준호(10)가 엄마에게 묻는다. 하루 종일 메주 배달을 다니는 엄마. 준호는 왜 갑자기 그 이유가 궁금해진 것일까?
“우리 ‘아들 부처님’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부셨나요?”
늘 가족 이름에 ‘부처님’이란 말을 붙여 부르는 엄마. 이렇게 자녀의 이름에 부처님을 붙여 부르는 것은 자식들이 부처님 가르침 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김 씨는 아들 준호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잘 안다. 집안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메주의 독특한 곰팡내(?)를 하루종일 맡아 하니 아이로서는 기분 좋을 리 없다. 아침 식탁에서 엄마를 본 기억마저 까마득할 거라 생각하니 은근히 미안하다. 준호도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막내로서 괜히 해본 투정이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다. 윤옥이가 눈꽃축제를 보고 싶다는군.” 남편 공인복(대전 과학기술원 근무·46) 씨의 말에 김 씨는 대답이 없다. 역시 ‘괜한’ 소리 했다는 생각이 드는 공 씨. 남편 공 씨도 매일 아침 아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다. 4년 전부터 금강경독송회 대전포교당에서 수행을 시작한 이래 한번도 거르는 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병인 당뇨병 때문에 체력이 푹푹 떨어져 못 일어날 것 같은 날에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법당에서 장례를 하고 금강경을 읽는 김씨를 볼 수 있다.
김 씨도 남편의 마음을 잘 안다. 딸 핏계를 대지만 구경을 가고 싶은 건 정작 남편이다. 유난히 눈을 좋아하는 남편은 서울 개운사 불교학생회의 ‘금산사

겨울 수련회’에서 김 씨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눈이 필필 내리는 절에서 1080배를 마치고 나오는 김 씨의 모습에 반했던 것이다.
“엄마, 나도 천일기도를 하고 싶어요.” 올 3월 외국 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딸 윤옥이(16)는 매일 금강경 독송을 하는 엄마를 따라 백일기도를 시작해 거뜬히 백일을 채웠다. 또래보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다는 칭찬을 듣는 것도 매일 기도수행을 하는 윤옥이로서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제는 천일기도를 원(願)으로 할 만큼 불교를 좋아한다.
김용숙 씨는 딸과 함께 매일 아침 독경과 참선을 한다는 게 너무 든든하다. 김 씨가 시간나는 틈틈이 전국 선방을 찾아다니며 참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가족들의 신심 돈독한 격려와 배려 때문이다.

호가 된장국을 좋아하네. 된장국을 많이 먹어서 준호가 이렇게 큰가 보다. 여러분도 피자나 치킨만 좋아하지 말고 된장국을 많이 드세요”했다. 요즘 아이들은 김치나 된장국 등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데 비해 된장국을 가장 좋아하는 준호가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은 것.

매일 아침 법당서 금강경 독송

김용숙 씨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주 파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다.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만들어지는 ‘금강경 메주’. 이 메주는 각 가정의 식탁에서 보글보글 맛있는 찜개가 되고 국이 된다. 특히 김 씨는 메주 파는 일에 남다른 정성을 보이고 있다. 포항 금강정사 수행자들이 만든 메주를 받아다가 아파트 앞 시장, 백화점 판매 행사장, 가정집을 돌아가며 판다.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 보시를 한다. 이 기금을 절심을 굽는 결식아동들에게 전달 된다.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메주로 인해 삶의 희망을 얻고 있다.
김용숙 씨가 메주 장사를 시작한 것은 3년 전, 초등학교 1학년 준호네 반 공개수업에 나간 때부터다.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적어보세요.” 준호가 반 아이들 중 유일하게 ‘된장국’이라고 썼다.
이를 본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준

직장다닐때 월급 50% 남 돕는 일에

애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신세대 엄마들이 김용숙 씨에게 어떻게 된장국을 끓이기에 아이들이 잘 먹느냐는 등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우리나라 음식을 대표하는 된장, 항암효과도 큰 된장을 먹는 것은 우리 음식 문화의 전통을 잇는 길이기도 하기에 ‘준호 엄마’는 된장의 효능,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시간 나는 대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에따라 아들 친구엄마와 이웃 보살들이 ‘금강경 메주’를 찾게 되었고 김 씨는 금강경독송회 된장을 구해다 한 집 두 집 갖다 주다보니 어느새 ‘금강경 메주’ 배달부가 되었다.
‘금강경 메주’를 위해 7개월 전부터는 직장도 그만 두었다. ‘금강경 메주 수행’에만 매진하고 싶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할때도 김씨는 월급을 타면 그중 50%를 법당 불사에 보시하거나 남을 돕는 일에 써 왔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독경과 참선을 하고 사찰 참선 수련회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메주를 직접 갖다 주는 일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빼앗기지요. 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성심껏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메주로 인해 소년소녀 가장들이 밝게 웃을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김용숙 씨는 오늘도 메주 배달을 부탁한 집 초인종을 누른다. “당동! ‘금강경 메주’ 왔어요.”
글 =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 박재완 기자 jypark@buddhapia.com

◇매일 새벽 법당에서 금강경 독송을 하는 김용숙 씨는 ‘금강경 메주’를 팔아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사찰 불사를 지원하고 결식아동들을 돕는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 의 외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중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